

12강 다른 복음, 거짓 교사 (고후 11:1~15)

(읽을 말씀: 11:6~15)

오늘의 포인트

- 가르침과 영적 지도자를 분별해야 하는 성도 각자의 책임을 이해하라.
- 교회의 영적 음행을 이해하라.
- 교회의 성공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라.

맥락

-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고린도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한 바울 사도의 최후 권면
- 도대체 그들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사도는 그들을 미혹시킨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한다.
- 대적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바울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다.

1. 바보 연설(Fool's speech, 11:1~12:13)을 시작하다

바울 사도는 자화자찬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했었다(10:12).

이제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그들처럼 자랑을 시작한다.

(11:1)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1) 바보 연설을 하는 동기

(11: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 고린도 교인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결혼식날—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순결한 신부로 지켜주어야만 하는 아버지의 열심어린 마음
- 바울 사도가 자신을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고린도교회의 일부 교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권면하고 설득하고 심지어 어리석은 짓인 줄 알면서도 자랑(바보 연설)을 하는 유일한 이유

[유대인의 결혼관습에서 약혼식]

- 신부의 아버지는 딸인 신부가 결혼식까지 순결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신랑에게 하게 한다.
- 신부의 아버지에게는 딸이 그 서약을 잘 지키게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로서 이제 자기 딸과 같은 고린도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신부가 영적 순결의 서약을 지키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열심'(2)=질투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 하나님의 질투와 같은 질투(출 20:5)—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출 20:5)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 바보 연설을 하는 바울 사도의 동기—신부 아버지의 '질투'
 - 목회자들의 질투,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질투?

2. 고린도교회의 영적 음행—고린도교회는 영적 음행을 저질렀는가?

(11:3)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1) 영적 음행의 정의?

- 교회나 성도가 성적(혹은 도덕적) 방종에 빠지거나 탈선하는 것
- 영적 음행의 가장 본질적 형태—우상숭배
- “너희는 단순히 나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차원으로 영적 음행을 하는 것이다!”
- 고린도교회의 영적 음행—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에 빠져 참 사도와 참 복음을 거부하는 행위
-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 엄청난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하여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인류가 타락하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지금 너희가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일까 두렵다!!!

(2) 하와의 타락의 핵심

- 하와는 사탄의 거짓 가르침(거짓말)에 속아 타락했다.
- 사탄의 거짓 가르침
 -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불충분하다.”
 - “하나님은 너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지는 않으셨다.”
 -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먹으면 너는 비로소 자유인이 된다.”
- 우상숭배와 영적 음행의 핵심
 -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생각과 행동
- 고린도교회의 영적 음행의 배후에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있다.

3. 사탄의 기만의 도구—거짓 가르침

(11:4)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만일 누가 가서’= 단수—고린도교회 거짓 교사들의 지도자 또는 그들 전체를 집합적으로 지칭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거짓 교사들도 예수, 성령, 복음을 말했지만, 그것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었다.

거짓의 아비 사탄(요 8:44)의 도구=거짓 가르침=유사 가르침=유사 복음

(1) 다른 예수—“예수만으로 부족하다.”

- ‘다른 예수’
 -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 “구원을 위해서는 할레나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
 -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건강과 성공도 중요하다.”
- 예수님은 삶과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 죄인이 죄사함을 위해서는, 요구받는 아무 행위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이며 심판이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2) 다른 영—“성령은 기적을 일으키고 무아경의 체험을 주시는 분이다.”

- ‘다른 영’
 - “기적을 일으키고 무아경의 체험을 주는 능력이다.”
- 성령님은 진리를 드러내고 보증해주는 진리의 영이시다(요 14:26; 15:26; 16:13~14).
- 성경은 성령님의 인격적인 증거를 무시하면서 능력으로서의 나타남과 체험을 추구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 기적을 추구하고 은사에 몰두하는 가르침이나 운동들은 위험하다.

(3) 다른 복음—“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 ‘다른 복음’
 -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옛언약의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
 - “더 지킬수록 성령의 은사를 더 체험하고 누리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고도 완전한다.

4. 거짓 교사들의 관점—고린도사람들의 입맛에 맞았던,,**(1)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태도****바울 사도의 관점**

-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다.
-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님을 경험한다.
- 고난이 깊을수록 성령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 수 있다.
- 고난이 자동적으로 은혜를 더 누리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하거나 해석할 때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값비싼 은혜다.

거짓 교사들의 관점

-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 속의 과거일 뿐이고 죽은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대치되어야 한다.
- 은혜를 받고 성령을 누리는 길은 부와 건강과 성공 그리고 영적 체험과 종교적 성공을 통해서 다.
- 여기에는 고난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거기서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배워가는 기쁨 같은 것은 없다.
- 즉각적인 만족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누리는 평안만이 있었다.
-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기 보다 자기를 부추기고 높이는 메시지와 건강과 부의 약속이 있었다.
- 여기에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구하기 보다, 자기의, 자기 중심성, 자기만족, 자기선전, 자기 자랑으로 가득찬 삶을 선호하게 만드는 힘만 있었다.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바울 사도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아직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치루지 않았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

거짓 교사들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전히 실현되었으므로 완벽하게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도 십자가도 자기부인도 필요 없다.

5. 거짓 교사들의 정체—사탄의 하수인

- 거짓 교사들은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를 망쳐놓았던 뱀처럼, 고린도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 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깨뜨리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대상이었다(고후 10:4~5).

6. ‘지극히 큰 사도들(super-apostles)’의 정체(5, 13~15)

(11:5)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1) ‘지극히 큰 사도들’(super-apostles)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 교회의 초기시대와 종교개혁자들(존 칼빈)—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참 사도들을 가리킨다.
- 대다수의 현대 학자들—‘거짓 교사들’을 가르킨다.
 - 이것은 문맥상 매우 타당하며, 바울 사도는 갑자기 자신을 참 사도들과 비교할 일이 없을 뿐 더러, 6절의 설명에도 부합한다.
- 지극히 큰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라면, 이들은,
 - 말씀을 혼잡하게 한 자들(2:17)
 - 자화자찬하는 자들(10:12)
 -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11:4)
 -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이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11:14~15)
 - 그들은 ‘가짜’다!!!

(2)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11:13)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 ‘지극히 큰 사도’는 거짓 사도이고, 속이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 바울의 이 폭로는 이들을 능력있는 참 사도들이라고 여기는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폭탄 선언이었을 것이다.
- 바울 사도는 앞에서 선전포고를 한대로, 지금 그들을 향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 전쟁은 피아(彼我)를 식별하고 적의 정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데서 시작한다.
- 바울 사도의 대적은 고린도 사람들—아직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이 아니라, 소위 ‘지극히 큰 사도들’인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가장하다’(masquerade)

(11:13~15)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 ‘가장하다(masquerade)’ = 가면무도회에서 자기를 숨기고 가면을 쓰고 나타날 때 사용되는 단어
-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 결코 사도가 아니었으나 사도의 가면을 쓴 자들의 정체를 폭로한다.

(3) 사탄의 일꾼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

(11:14)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은 변장하고 속이는 일이므로, 이것은 이상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다.

빛난다고 해서 다 빛이 아니다! 분별하라!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행동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의 적용점

- 참 복음과 다른 복음,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분별하라.
 - 진리의 싸움이 없었던 시대는 없다.
 - 결혼만큼 중요한 교회 선택과 결정은 성경적인 바른 분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바른 복음을 전하는가?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가?
- 거짓된 약속,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대적하라.
 - 복음 + 건강, 부, 성공
 - 진리 + 초자연적, 무아경적 체험, 기적과 은사 체험...
 - 믿음 + 율법의 행위
- 큰 것이 성공(size is success)이라는 문화를 거부하고 대적하라.
 -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이고 큰 교회의 목사는 훌륭한 목사라는 문화를 대적하라.
-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로 서는 날까지, 영적 순결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